

유재석·강호동 ‘같은 듯 다른 도전’



유재석

유재석, 새로운 형식의 예능 시도 강호동, 올해 14개 프로그램 소화 예능 투톱의 유쾌한 변신 큰 호응

방송인 강호동과 유재석이 나란히 변신을 꾀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예능프로그램을 이끌며 ‘투톱’으로 꼽혀온 강호동과 유재석이 각각 데뷔 26년과 28년째인 올해 색다른 행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강호동은 ‘다작’을 택했다. 올해 출연했거나 진행 중인 프로그램만 14편에 이른다. 버라이어티부터 관찰예능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것은 물론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등 안방극장의 다양한 부분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달 말 방영 예정인 케이블채널 스카이드라마 ‘위플레이’와 4월부터 시작한 채널 A ‘인입사원 탄생기-굿피플’에 이어 8월부터는 ‘아이콘택트’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시리즈를 새롭게 확장하는 데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6월 종영해 시즌2까지 호평을 얻은 tvN ‘대탈출’을 자신의 새 대표 프로그램으로 추가했다.

유재석은 ‘색다름’을 향한 갈증을 마음껏 풀어내고 있다. 주요 무대는 MBC ‘놀면 뭐하니?’다. 다양한 가수들이 유재석의 드럼 비트를 기반으로 각종 음악을 만들어내는 ‘유플래쉬’ 코너를 통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드럼을 배웠다.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로는 시청자와 직접 생중계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방영 중인 tvN ‘유크즈 온 더 블럭’로는 매주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덕분에 SBS ‘런닝맨’ 등 버라이어티 장르에 집중했던 때와는 다른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가까이에서 전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예능 투톱’의 이처럼 색다른 변신은 시청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각자 고유의 색깔을 굳히는 대신 각종 도전에 나서 그 성과를 조금씩 거두고 있는 셈이다. 다양한 방송사와 포맷을 경험하는 강호동에게는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게 돼 인상 깊다”는 찬사가 쏟아진다. 유재석에게는 “더 친근해졌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한 방송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30년에 가까운 연예활동으로 시청자 신뢰를 충분히 쌓아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석 기자 yjh0304@donga.com



강호동

비아이 마약 개입 의혹 경찰, 양현석 소환할듯

최근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입건된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이번엔 전 소속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김한빈·23)의 마약 사건 개입 의혹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비아이의 마약 및 양현석의 개입 의혹과 관련 사건을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가수 지망생 A씨가 이를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만큼 그에 대한 조사 이후 비아이와 양현석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6년 비아이가 A씨에게 대마초를 구해 달라고 요구해 건네받았는지 여부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당시 A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비아이의 요구가 담긴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1차 진술을 번복했고, 이 과정에서 양현석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또 양현석의 성 접대, 해외 원정도박, 환치기 등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도 현재 추가로 자료를 확보, 그에 대한 2차 소환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양현석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잇따라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뜻뜻한 톱스타...다시 뜨는 90년대 가요프로그램

MBC ‘쇼! 음악중심’ 유튜브 재생산 차승원·소지섭 등 데뷔 초 모습 기대

각 방송사가 1990년대 가요프로그램을 잇따라 유튜브 채널로 새롭게 선보이면서 시선을 모으는 가운데 당시 진행자로 나선 연기자들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SBS의 당시 인기 음악프로그램인 ‘생방송 인기가요’의 전지현과 송혜교가 그 핵심 주인공이다. 당시 대표작 없이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전지현은 1998년 2월부터 5월까지 ‘인기가요’의 진행을 맡아 당시 남자 진행자 중 최고로 꼽혔던 MC 김승현과

함께 가수들을 소개한다. 어설픈 멘트 등 생방송에 긴장한 모습이 추억의 웃음을 안긴다. 송혜교는 가수와 노래를 소개하는 VJ로 나섰다. 발랄하고 깜찍한 모습이 여성스럽고 고혹한 매력이 돋보이는 지금과 비교된다.

이들의 모습을 담은 ‘생방송 인기가요’와 함께 KBS도 2TV ‘뮤직뱅크’를 유튜브 콘텐츠로 재생산 중인 가운데 12일부터 합류한 MBC 1990년대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의 진행자들도 역시 화제다. 당시 갓 데뷔해 뜻뜻함을 발산하는 현재 톱스타들의 모습 덕분이다. 1대 진행자인 신동욱과 홍수아를 시작으로



연기자 전지현(왼쪽)이 1998년 MC 김승현과 함께 SBS ‘생방송 인기가요’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출처 | SBS 방송화면 캡처

로 스타들이 진행을 맡아 데뷔 초기의 활기 넘치는 매력을 뽐내고 있다. ‘쇼! 음악중심’의 전신인 ‘음악캠프’도 주목을 받으면서 차승원, 소지섭, 김효진, 공우 등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랄함으로 영상보기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핑클 재결합 무산? 콘서트 대신 팬미팅 개최

각자 다른 소속사·시간·장소 한계 사연 접수...추첨으로 참석자 초청

1세대 걸그룹 핑클이 재결합 콘서트 대신 작은 이벤트로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현재 방송 중인 JTBC 예능프로그램 ‘캠핑클럽’을 통해 그룹 해체 14년 만에 완전체로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 이들은 고민 끝에 팬미팅 형식으로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최근 1세대 아이돌 그룹이 잇따라 재결합 활동을 재개하면서 핑클의 콘서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1998년 해체 이후 개별 활동 등으로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미 등 멤버들이 단 한 차례도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아 팬들의 아쉬움을 낚았다. 이에 팬들은 ‘캠핑클럽’과 최근 내놓은 스페셜 앨범을 시작으로 콘서트를 여는 게 아니냐는 호기심을 드러냈다. 멤버들이 방송을 통해 콘서트에 대한 속마음을 내보여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하지만 소속사가 각기 다르고 콘서트 개최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많다고 판단해 결국 팬미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시기는 조만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핑클과 관련된 사연을 접수해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참석자를 초청한다. 핑클의 한 측근은 15일 “재결합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멤버들 모두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은 만큼 의지에 따라 또 다른 형식의 무대도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정유미, ‘협한 논란’ DHC 모델은 언제까지?

위약금 등 얽혀있어 장기전 예고

연기자 정유미가 최근 ‘협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기업 DHC와 모델 계약 중단을 선언한 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법적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델 계약을 중단하기까지 관련 절차 등 시간적 경과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유미는 위약금 등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계약 중단”의 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정유미의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DHC의 자회사인 ‘DHC테레비’의 유튜브 콘텐츠가 논란을 일으킨 직후인 지난달 12일 DHC 측에 초상권 사용 철회 및 모델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관련 협의를 거듭해왔다. 내년 초로 알려진 계약 종료를 앞당기기 위해 최근 광고를 주관한 에이전시와도 한 차례 만나 세부사항 등을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DHC의 사이트에는 이벤트 광고 등을 제외하고는 정유미의 사진이 없



정유미

어진 상태다.

정유미는 ‘DHC테레비’의 유튜브 콘텐츠인 ‘진상 도라노론 뉴스’가 극우성향의 출연자들 등 장시커 원색적인 ‘협한 발언’을 쏟아내자 모델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진상 도라노론 뉴스’는 지난달 초 “조센징(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했다”는 등 출연진의 발언을 아무런 여과 없이 담아내 비난을 받았다. 이후 누리꾼의 날선 시선이 모델인 정유미에게까지 쏟아졌다.

정유미 소속사 측은 하루빨리 계약이 종료되길 원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에이전시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DHC코리아가 일본 본사에도 관련 문제를 상의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해진 탓이다. 특히 광고계에서도 전례 없는 경우라 위약금 등 금전 문제도 얽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유미와 소속사는 모델 중단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15일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모델 종료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재석 기자 yjh0304@donga.com

#해시태그 킷



열 아홉살 신지...누구나 넌!

그룹 코요태 신지의 20년 전 모습이 화제다. 신지가 “누구나! 넌? 19살에는 뭘 해도 예뻐 때였죠. 그뻐 몰랐지만”이라며 데뷔 초 모습을 공개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외모에 “내 눈에 쌍수(쌍꺼풀수술) 어디 갔니”라고 글을 남겼다. 신지 뒤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흥경민의 모습도 눈길을 붙들었다. 팬들은 “사자머리 귀여워요” “추억 돋네요” 등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투아 #코요태 #신지 #누구나넌

연예뉴스 HOT 3

문근영·김영희도 ‘독도 캠페인’ 동참

스타들이 잇따라 독도 캠페인에 동참해 화제다. 연기자 문근영은 15일 자신의 SNS에 독도 캠페인 티셔츠를 입은 사진과 함께 “DO YOU KNOW? 독도캠페인 함께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문구와 독도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차림으로 눈길을 모았다. 앞서 개그우먼 김영희도 같은 옷차림에 관련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들이 참여한 독도 캠페인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문화콘텐츠 분야 종사자들의 자발적 운동이다.

슬리피-TS엔터 갈등...법적 분쟁 예고

래퍼 슬리피와 소속사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드러냈다. 슬리피는 5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6월 기각당한 뒤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광고모델료 배분 등에 관한 이견으로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슬리피는 2006년 그룹 언더처블로 데뷔해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독립영화 ‘벌새’ 보름 만에 7만 관객

전 세계 영화제 ‘25관왕’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벌새’가 휩쓸고 있다. 8월29일 개봉한 ‘벌새’가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7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개봉 15일 만에 이같은 성과를 쓰면서 ‘벌새’는 한국 독립영화의 힘을 오랜 만에 과시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추석 특수를 노리는 기대작과 흥행작 틈새에서 15일 박스오피스 10위에 당당히 올라 있다. ‘벌새’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소재 삼아 14살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